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 관계에서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 일본대학생을 중심으로 -

박현지*
ParkH2@cardiff.ac.uk
박영배**
ybpark@deu.ac.kr

<目次>

| | |
|--------------------------------------|-------------------------|
| 1. 서론 | 3.2 측정도구 |
| 2. 이론적 배경 | 3.3 연구 모형 |
| 2.1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 | 3.4 분석 방법 |
| 2.2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 4. 실증 분석 및 논의 |
| 2.3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 이용 동기 및 문제적 이용 관계 | 4.1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
| 3. 연구 방법론 | 4.2 측정모형 분석 |
| 3.1 연구 대상 | 4.3 연구모형의 구조 분석 |
| | 5. 결론 |

주제어: 소셜미디어(social media), 과도한 이용 (excessive use), 이용동기(usage motivation), 문제적 이용 (problematic use), 일본(Japanese), 대학생(University students)

1. 서론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톨과 미디어 플랫폼으로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만들어 가는 미디어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쉽게 언제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고,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Guazzini, Cecchini, Guidi, Milani & Meringolo, 2016; Oberst et al, 2016). 日経ビジネス (니케이 비즈니스, 2019)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학생의 93%이상이 소셜미디어

* 영국 Cardiff대학교 School of Journalism, Media and Culture 박사과정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

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박현지와 박영배 (2017)는 일본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교류하며 나 혼자만의 시간도 즐겁고 재미있게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일본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 관계망의 크기와 활용에 있어서 한국의 대학생들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주 만나기 어려운 사적인 관계의 대상들과 관계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일본 대학생의 적극적이며 특징적인 소셜미디어 이용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셜미디어 접근성이 더 자유롭고, 정보에 민감하며 친구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이용에 더 열광적이다(Woods, Taylor & Dumas, 2019; We are social, 2018; Pempek, Yermolayeva & Calvert, 2009). 이는 소셜미디어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대인 관계 확장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Stapleton, Luiz & Chatwin, 2017; 김봉섭, 2015).

반면 소셜미디어 이용은 긍정의 효과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문제적 이용 혹은 중독 경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은 일부 이용자에게 우울, 불안, 물질 중독 등의 정신의학적 질환 뿐 만이 아니라 수면, 학업 성취도, 대인관계, 정체성 및 신체활동 등 개인의 건강적 기능에도 부정의 영향을 미친다(Lim & Kim, 2018; Kuss & Griffiths, 2017; Arapaci, Yardimci Cetin & Turetken, 2015; Arpaci, 2013).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임상적으로 중독으로 진단되었느냐와 상관 없이 명백하다(Griffiths, Demetrovics & Atroszko, 2018; Ryan, Chester, Reece, & Xenos, 2014).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지나치게 습관적이어서, 삶의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Kuss & Griffiths (2017)는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중독이라는 용어 자체가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현재시점에 일관된 진단 준거를 내리기 어렵다고 한다(Koc & Gulyagci, 2013).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독(addiction), 의존(dependency), 관여(involverment), 과다이용(heavy use), 과도한 탐닉(excessive appetites), 강박적 열정(obsessive passion), 문제적 이용(problematic use), 몰입(flow), 애착(attachment) 등 통일되지 못한 혼재된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소셜미디어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단순히 소셜미디어 중독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신미경,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독(addiction)이란 개념보다는 ‘문제적 이용(problematic use)’이란 용어를 이용하였다(Billieux, Schimmenti, Khazaal, Maurage, & Heeren, 2015).

소셜미디어 문제적 이용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Hussain & Griffiths, 2018; Turel & Turel-Saremi, 2016). 즉,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 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분을 완화하는 주기적 패턴을 반복하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심리적 의존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문제적 이용이 지속되면 중독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심리사회적 접근 연구를 통해 자아 존중감, 우울, 외로움, 소외감, 불안 등 주요 변인을 검토한 연구가 대부분이다(Casale & Fioravanti, 2018; Kwahk & Hong, 2018; Baker & Algota, 2016; 박민정 & 정미영, 2019; 장민희, 김대연, 이장주, 정태연, 2017). 하지만, 소셜미디어 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 혹은 관계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대학생들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이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용 동기 요인에 따라 스스로 미디어를 선택한다는 능동성을 강조하기에 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Wallace & Baumeister, 2002).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문제적 사용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문제적 이용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 문제적 이용의 예방 및 개입에 기여할 단초를 제공하여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이어지는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념적 혼용에도 불구하고, 특정 매체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잃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들어 인지적·행동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Hormes, 2016; Muench, Hayes, Kuerbis & Shao, 2015; Ryan, Chester, Reece & Zenos, 2014; Griffiths, Kuss & Demetrovics, 2014; Steers, Wickham & Acitelli, 2014; Wu, Cheng, Ku & Heung, 2013).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개인의 삶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현저성(salience)이 증가하고,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이용 조절력(self-control failure)이 감소하여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를 경험하는 상태가 된다(Andreassen & Pallesen, 2014; Andreassen, 2015). 즉,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적 이용을 경험하게 된다. Lee, Cheung & Thadan (2012)는 페이스 북의 과도한 이용은 학업성적,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고, Malik & Khan (2015)은 과도한 이용이 문제적 이용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문제적 이용은 강박적 이용과 같이 정상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문제적 이용의 행동적 증상의 하나인 강박적 이용은 실생활 영위에 지장을 주는 등의 중독현상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병리학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아니며, 다양한 유형과 성향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다면체적인 현상이다(Davis,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동시에 이용을 멈추거나 줄이는 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Caplan, 2003; Neo & Storic, 2009). 그러므로 문제적 이용은 병리학적 치료가 요구되지 않으나 통제력의 상실을 경험하는 정도로 종합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조절능력이 저하되고 강박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하게 된다 (Atroszko, 2015, 2018; Sussman, Rozgonjuk & Van Den Eijnden, 2017; 배성만, 2018).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과도하게 이용하게 되면 선택적 친구관계를 맺게 되고, 갈등을 회피하며,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게 된다(Jeung & Hyun, 2015; 김은미, 이동후, 임영호, 정일권, 2011). 커뮤니케이션의 감소는 가족, 친구들의 관계를 대면적인 관계에서 피상적인 관계로 바꾼다(Seung & Hyun, 2016;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3). 따라서 대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더욱 더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은지, 2019; 송혜진, 2011). 즉,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과도하며 강박적인 사용은 문제적 이용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최민재, 김위곤, 2013). 이는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이 문제적 이용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소셜미디어 이용에 조절이 어려우며,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홍경희(2002)가 주장한 것과 같이 과도한 이용이라는 용어를 통해 기존의 병리적 이용 개념과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이란 절대적이거나 병리적인 중독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용시간

통제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 및 학업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험을 빈번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여슬기,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의 하위 요인으로 이용기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는 전체 기간으로 측정하여 3년 미만, 3년에서 5년 미만, 5년에서 7년 미만, 7년 이상으로 세분화하였고, 이용시간 빈도는 일일 이용시간으로 측정하여 2시간 미만, 2시간에서 4시간 미만, 4시간에서 6시간 미만 및 6시간 이상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접속시간은 소셜미디어를 1회 접속시 이용하는 시간으로 측정하여 1시간 미만, 1시간에서 3시간 미만, 3시간에서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문제적 이용의 하위 요인으로는 소셜미디어 이용을 절제나 통제하지 못하는 조절실패에 따른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소셜미디어가 개인에게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몰입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시간적인 효과가 늘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기 위해 본인이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인 내성으로 몰입과 내성,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본인이 가지는 불쾌감이 사라지는 부정정서의 회피, 그리고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의 대인관계에서 친밀감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크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큰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으로 구분하였다.

2.2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기존의 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용 동기 요인에 따라 스스로 미디어를 선택한다는 능동성을 강조하기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가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의 매개효과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중독을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에 주목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등장한 소셜미디어를 이용과 충족이론(use and gratification theory)을 바탕으로 한 이용 동기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주목받으면서, 이용 동기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현지와 박영배, 2019, 2018; 유나, 2016).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본원적 욕구에 근거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목적이라고 정의하였다(조진행, 2018).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정보추구 및 획득을 위한 인지적 동기, 현실도피나 기분 전환을 위한 오락적 동기, 강화효과를 유발하는 정체성 동기 등으로 밝혀졌다(Blumler, 1979). Schaefer & Cora (2008)의 연구에서는 관계유지, 연결확장, 관계형성, 정보검색, 오락, 사교 등의 요인을 확인하였고, Tylor et al.(2011)은 내용관련 효능감, 구조관련 효능감 및 사회관련 효능감으로 구분하였

으며, Gulnar et al. (2010)는 자기에 및 자기표현, 미디어 호감, 시간 보내기, 사회적 지위, 정보수집 및 탐색, 대인 관계유지, 오락 등 7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Ancus & Cozma (2009)는 소셜미디어의 이용 동기를 사회적 동기, 기능적 동기, 유희적 동기 등을 주장하였다. 노영 (2016)은 자기표현, 정보 활용, 소통, 시간 보내기 등의 페이스 북 이용 동기를 확인하였다. 박현지와 박영배 (2019)는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를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비교 연구를 통해 '포스팅'과 '좋아요'를 누르는 요인을 '미시적 이용 동기'라고 분류하고, 기존의 문헌 연구와 집단 심층면접과 개별 심층면접을 '정보적 동기', '관계적 동기', '표현적 동기', '유희적 동기', '인지적 동기', '감정적 동기' 등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미시적 이용 동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을 표현하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공감을 받는 메카니즘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p. 310)". 특히 일본 대학생들은 관계지향적인 소셜미디어 이용 패턴과 소셜미디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소셜미디어에서의 접촉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셜미디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신뢰의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White & Mills, 2014). 설진아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동기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분석결과 정보획득의 이용 동기를 가진 이용자는 이용시간이 낮았고, 오락추구의 이용 동기를 가진 이용자는 이용시간이 높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볼 때 사회·심리적 맥락에서 사람들은 가치관, 관심사 혹은 각자의 흥미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매체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현지와 박영배 (2018)는 HEXACO 성격요인과 소셜미디어 국가간 비교 연구를 통해 이용 동기를 자아적 동기, 상호작용적 동기, 오락적 동기 및 정보 탐색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를 다음의 네 가지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자아적 동기는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성취감 및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상호작용적 동기는 지인들과 교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친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기 위해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오락적 동기는 기분 전환을 위해, 재미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심심할 때 시간을 보내기 위해 등으로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보적 동기는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최근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를 얻기 위해 등으로 구성하였다.

2.3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 이용 동기 및 문제적 이용 관계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은 문제적 이용의 예측을 위한 변인으로, 이용 동기에서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도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소셜미디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가에 대한 양(횟수, 시간)과 어떠한 목적 혹은 이유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질(이용 목적 혹은 이용 동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Wang, et al, 2012),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횟수 및 시간)은 일부 이용자에게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Kuss & Griffiths 2017). 하지만, 과도한 이용은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용 동기 요인을 매개변수로 하였을 경우,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미경 (2015) 은 이용시간이 길수록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타인들의 피드백에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자기 확인적 동기로 인해 소셜미디어 이용 몰입에 빠져들게 된다고 밝혔고, 성요안나와 현명호 (201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이용 동기를 분석한 결과 중독에 대한 경험 회피의 매개 효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노영 (2016)은 20대를 대상으로 이용 동기를 검증한 결과 관계 형성과 즐거움은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몰입 또한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Philipp et al (2014)는 이용 동기와 중독간의 상호관계를 중재하는 인구통계학적 그리고 사회 심리학적 변인들을 확인하였다.

반면, 노미진과 장성희 (2016)는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를 감정적, 인지적 동기로 구분하여 감정적 동기인 오락성과 환상 그리고 인지적 동기인 정보 부담과 시스템 이용 부담 모두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춘화 (2018)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용 동기를 분석하여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소셜미디어 하루 평균 이용 시간, 성별, 대인관계 능력이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중에서도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가 소셜미디어 중독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라고 분석하였다. Marino et. al., (2018)은 다른 동기에 비해서 특정 동기인 시간 보내기, 현실 회피는 소셜미디어의 문제적인 이용과 관련이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의 하위 요인과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대인관계 추구 동기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목적을 두는 동기로 소셜미디어 중독경향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기이다(조윤희, 2016). 소셜미디어 이용자 가운데 가상세계지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았으며, 이들은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들을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다고 하였다(송혜진, 2011). 대인관계 추구 동기가 높으면 소셜미디어 중독경향성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집착적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이 높았다(이회복, 2014). 오락추구 동기는 재미있는 것을 찾아내고 즐기기 위해, 혹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의 동기로 소셜미디어 이용시간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소셜미디어 중독경향성과의 관계도 유의미하다고 하였다(유나, 2016). 노미진 등 (2016)은 오락과 환상이 소셜미디어 중독경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재미와 시간 보내기를 위한 동기도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소셜미디어 이용량과 정보탐색 동기의 관계에 대해 소셜미디어의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정치 및 사회적 정보획득 또한 증가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함소연, 2016). 그리고 박웅기(2013)는 인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정보추구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며, 이 때문에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오승석(2010)의 연구에서는 트위터 이용자의 정보 탐색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은 문제적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의 관계에서 이용 동기는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3. 연구 방법론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소재하는 X, Y, Z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유의사항을 직접 설명하였고,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연구자가 직접 26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설문지 5부를 제외한 25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 수 산출의 근거는 G* version 3.1.9.7을 이용한 결과, medium 효과크기 0.3, 검정력 0.95로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220명을 충족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의 소셜미디어 이용특성은 다음의 <표1>과 같다. 먼저 학년별 대상자는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이용기간의 경우 7년 이상이 187명 (73.3%), 5-7년이 36명 (14.2%), 3-5년 이 23명 (8.9%), 3년 미만인 9명 (3.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일 이용시간의 경우 4-6시간이 79명 (30.9%), 6시간 이상이 73명 (28.4%), 2-4시간이 70명 (27.6%), 2시간 미만이 33명 (13.1%) 순으로 조사되었다. 1회 접속시간의 경우 1-3시간이 151명 (59.2%), 3-6시간이 74명 (29.1%), 1시간 미만이 22명 (8.5%), 6시간 이상이 8명 (3.2%)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1> 연구대상자의 소셜미디어 이용특성

| 구분 | | 명 | 빈도(%) |
|---------|-----|-----|-------|
| 학년 | 1 | 67 | 26.2 |
| | 2 | 63 | 24.8 |
| | 3 | 52 | 20.3 |
| | 4 | 73 | 28.7 |
| 이용기간(년) | <3 | 9 | 3.6 |
| | 3-5 | 23 | 8.9 |
| | 5-7 | 36 | 14.2 |
| | >7 | 187 | 73.3 |
| 일일 이용시간 | <2 | 33 | 13.1 |
| | 2-4 | 70 | 27.6 |
| | 4-6 | 79 | 30.9 |
| | >6 | 73 | 28.4 |
| 1회 접속시간 | <1 | 22 | 8.5 |
| | 1-3 | 151 | 59.2 |
| | 3-6 | 74 | 29.1 |
| | >6 | 8 | 3.2 |

3.2 측정도구

1)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 척도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 척도로는 소셜미디어 이용기간 (4문항), 이용시간 (4문항) 및 접속시간 (4문항)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들은 5점 Likert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는 이용기간은 .82, 이용시간은 .88, 접속시간은 .86으로 총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신뢰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척도

이 척도는 박현지와 박영배 (2018)가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자아적 동기 (5문항), 상호작용적 동기 (4문항), 오락적 동기 (3문항) 및 정보적 동기 (3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내용에 맞는 문항을 통해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설문 문항들은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는 자아적 동기는 .85 상호작용적 동기는 .88, 오락적 동기는 .81 및 정보적 동기는 .88으로 총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신뢰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 소셜미디어 문제적 이용 척도

이 척도는 정소영과 김종남 (2014)가 개발한 대학생용 소셜미디어 중독경향성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7문항), 몰입 및 내성 (7문항), 부정정서의 회피 (5문항) 및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5문항) 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요인별 내용에 맞는 문항을 통해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설문 문항들은 5점 Likert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소영과 김종남의 연구에서는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는 .92였으나,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는 .83, 몰입 및 내성은 .88, 부정정서의 회피는 .82 및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은 .86로 총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신뢰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가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는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 매개변수는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그리고 종속변수는 문제적 이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정 모형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3.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0.0과 AMO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 및 Pearson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로 분해하여 변수들 간의 심층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에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4. 실증 분석 및 논의

4.1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이용한 주요 측정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는 <표2>에 정리하였다.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과도한 이용, 이용 동기 및 문제적 이용 변수들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은 문제적 이용변수들과 부정적 정서 및 회피요인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고, 이용시간은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접속시간은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요인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이용의 3개 하위요인은 이용 동기의 4개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이용 동기 중 정보적 동기요인만 문제적 이용 하위 4개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고, 이용 동기 3개 하위요인(자아적 동기, 상호 관계적 동기 및 유희적 동기)은 문제적 이용 요인들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2>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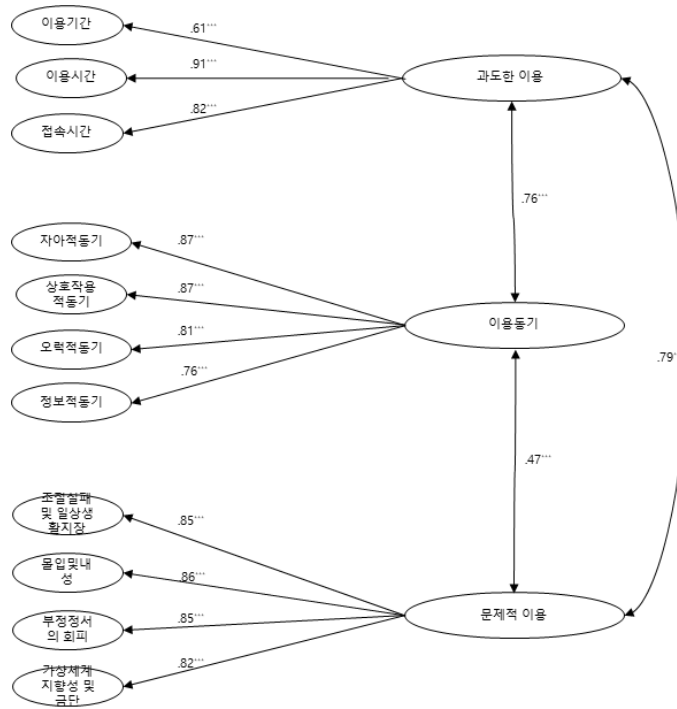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도한 이용 | 1 | | | | | | | | | | | |
| | .524** | 1 | | | | | | | | | | |
| | .347** | .531** | 1 | | | | | | | | | |
| 이용 동기 | .368** | .613** | .691** | 1 | | | | | | | | |
| | .294** | .456** | .657** | .264** | 1 | | | | | | | |
| | .282** | .344** | .335** | .226** | .198** | 1 | | | | | | |
| | .223** | .315** | .289** | .382** | .356** | .540** | 1 | | | | | |
| 문제적 이용 | .065 | .306** | .150** | .182** | .393** | .164** | .026 | 1 | | | | |
| | .042 | .395** | .106* | .121* | .354** | .163** | .091 | .168** | 1 | | | |
| | .152** | .341** | .184** | .204** | .229** | .226** | .027 | .227** | .491** | 1 | | |
| | .011 | .396** | .108 | .105 | .183** | .205** | .004 | .199** | .463** | .621** | 1 | |
| M | 2.229 | 1.657 | 1.790 | 1.744 | 1.759 | 1.786 | 1.454 | 1.291 | 1.957 | 2.145 | 1.942 | |
| SD | .604 | .528 | .586 | .602 | .576 | .494 | .486 | .454 | .587 | .561 | .568 | |
| 왜도 | .153 | .724 | 1.010 | 1.529 | .924 | 1.258 | .915 | 1.182 | .265 | .254 | .142 | |
| 첨도 | .762 | .206 | 1.052 | 2.933 | .121 | 3.204 | 1.070 | .321 | .623 | .607 | .526 | |

주1) p* < .01. p** < .001.

주2) ①=이용기간, =이용기간, =접속시간, =자아적 동기, =상호작용적 동기, =오락적 동기, =정보적 동기,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 세계 지향성 및 금단

4.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의 측정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림2>에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표에 따르면 측정 변수들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61-.91로 나타나 요인 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기에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들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절대값(correlation coefficient)도 .47-.79로 측정되어 .85를 초과하지 않아 변수들 간의 변별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측정 모형은 잠재변수의 측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 p***<.001

<그림2> 측정모형 분석

4.3 연구모형의 구조 분석

1) 연구모형 적합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이 외생변수,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가 매개변수, 그리고 소셜미디어 문제적 이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인 Chi-square,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비표준 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Chi-square검증은 모집단 변량 추정 시 사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hi-square와 함께 Hong (2000)이 제안한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검증모형의 적합도는 <표3>에 정리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RMSEA .074, TLI .932 그리고 CFI .951로 모두 적절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3> 연구모형 적합도 측정

| 적합도 | Chi-square | df | Chi-square/df | p | TLI | CFI | RMSEA |
|------|------------|----|---------------|------|------|------|-------|
| 연구모형 | 109.42 | 46 | 2.653 | .000 | .932 | .951 | .0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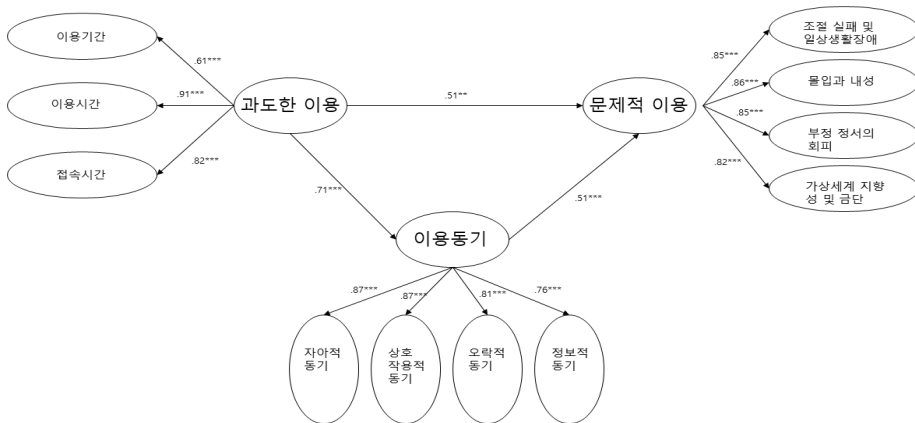
2)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및 유효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경로 추정치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은 이용 동기에 대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동기가 문제적 이용에 대한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이용은 문제적 이용에 대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동기 역시 문제적 이용에 대한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과도한 이용이 이용 동기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은 .705이며, 문제적 이용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은 5.014이며, 이용 동기의 문제적 이용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은 3.899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3>과 같다.

<표4>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추정치 측정

| 경로 | Estimate | SE | CR |
|-----------------|----------|------|----------|
| 과도한 이용 → 이용 동기 | .614 | .017 | .705 |
| 과도한 이용 → 문제적 이용 | .509 | .046 | 5.014*** |
| 이용 동기 → 문제적 이용 | .313 | .061 | 3.899*** |

주) p***<.001



주) p***<.001

<그림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3)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소셜미디어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과도한 이용과 이용 동기에 대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5>에 정리되어져 있다. 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효과를 살펴보면 과도한 이용(전체효과 .489) 및 이용 동기(전체효과 .466)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이용은 문제적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용 동기 역시 직접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효과를 합친 전체효과에서도 이용 동기가 문제적 이용에 미치는 효과보다 과도한 이용이 문제적 이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가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나 과도한 이용이 문제적 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이용은 이용 동기를 통해서 문제적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표5>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측정

| 경로 | 전체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
| 과도한 이용 → 이용 동기 | .486 | .284 | .202 |
| 과도한 이용 → 문제적 이용 | .489 | .294 | .195 |
| 이용 동기 → 문제적 이용 | .466 | .276 | .190 |

4)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가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를 통한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수추정에 사용한 Bootstrapping은 무선 표집으로 생성하여, 유의도 .05수준에서 매개효과 추정값의 95%의 신뢰구간으로 설정하였을 때, 귀무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6>에 정리되어져 있다. 표에 따르면, 과도한 이용 → 이용 동기 → 문제적 이용의 경로에서 이용 동기와 문제적 이용의 매개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6> 매개효과 검증 측정

| 경로 | 추정값 | SD | 95% CI (하한값,상한값) |
|-------------------------|------|------|------------------|
| 과도한 이용 → 이용 동기 → 문제적 이용 | .198 | .069 | (.069, .374) |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을 설정하고 이 관계에서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광역시 소재의 3군데 4년제 일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에는 대학생 25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이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은 문제적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은 문제적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Wang, Luo, Luo, Gao, & Kong, 2012; Surahmanyam, Greenfield, Kraut, & Gross, 2001). 이러한 결과는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은 문제적 이용이라는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매체의 과도한 이용이 자아존중감과 웰빙 등 신체 및 정신건강은 물론 일상생활에 까지 부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Kuss and Griffiths 2017; Kim & Kang, 2016; Valkenburg, et al., 2006). 이에 더하여 소셜미디어의 문제적 이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업성적이나 미래에 대한 관심이나 의욕이 떨어지고(Kirschner & Karpinski, 2010), 오직 눈앞의 가상세계에만 관심을 두고 집착하게 된다. 또한 문제적 이용에 몰입하는 대학생들은 사고의 자기 중심화를 초래해 친구 혹은 또래들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Yang, Liu & Wei, 2016; Nyland, 2007).

이와 더불어 소셜미디어 문제적 이용은 과도한 이용에 따른 참을 수 없는 금단과 내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주의력 결핍과 집중력 저하, 강박관념, 스트레스와 우울증, 의존증, 공격성과 충동성, 완벽주의와 나르시시즘, 식이장애, 왜곡된 이미지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제적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을 포함한 다른 변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의 하위 3개요인 (이용기간, 이용시간 및 접속시간)이 문제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용기간은 문제적 이용의 부정적 정서의 회피요인을 제외한 3개 하위 요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요인, 몰입 및 내성요인,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및 접속시간은 모든 하위 요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이용시간은 문제적 이용의 4개 하위요인 모두에 아주 높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고, 접속시간은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요인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접속빈도의 증가는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Muench, Hayes & Kuerbis, 2015; Lee YM, 2016). 특히, 이들은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수록, 접속시간이 많을수록 문제적 이용의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아직 다양하게 검증되지 않은 결과로서, 본 연구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이 이용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이 이용동기 하위요인들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dreassen, Pallesen & Griffiths, 2017; Muench, Hayes & Kuerbis, 2015; Lee YM, 2016).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3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 이상은 5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w Research조사 (2019)에서는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의 급증은 포모증후군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였다, FOMO란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을 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가 대표적 활동으로 꼽힌다(Elhai, Yang & Montag, 2020). 포모증후군은 소셜미디어 친구들과 연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이는 문제적 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모증후군을 보이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훨씬 자주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Classen, Wood & Davis, 2020).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나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는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의 관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 동기가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arino, Gini, Vieno, & Spada, 2018; 이귀옥과 박조원, 2018). 본 연구를 통해 이용 동기의 4개 하위 요인 (자아적 동기, 상호작용적 동기, 오락적 동기 및 정보적 동기)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적 이용에 모두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연구모형의 효과분해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상호작용적 동기가 문제적 이용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정보적 이용 동기가 문제적 이용에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 동기의 하위 요인 중 자아적 동기인 자기표현 및 오락 추구 동기가 문제적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귀옥과 박조원, 2018). 즉,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을수록 문제적 이용의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이는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가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 한다 (Jeon, Lee, Sang, 2014; Lim, 2014).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가 높으면 몰입을 하게 되고, 이는 문제적 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와 중독의 연관성을 연구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관계로 그리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다. 이용 동기와 문제적 이용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 연구들은 다른 동기에 비해 시간 보내기, 현실 회피 같은 특정 동기가 소셜미디어 문제적 이용과 관련성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희복 외(2015)의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간 보내기, 재미 추구 동기가 문제적 이용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춘화 (2018)는 문제적 이용에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의 설명력이 가장 크다고 밝혔지만, 동기의 하위 차원을 도출하지 않아서 어떤 동기가 중독과 연관되어있는가는 보여 주지 못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페이스 북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플랫폼별로 구분하여 이용 동기를 파악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차이점을 추출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과거와 비교할 때 소셜미디어의 기능이나 쓰임새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 동기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 관계에서 정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용 동기의 매개적 효과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B광역시 3군데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응답자가 지역으로 한정되고 편향되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적 요소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 간 혹은 대륙 간 비교연구를 위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 및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성별, 학년별, 학업수준별 등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및 학업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직 문제적 이용 혹은 중독 등에 대한 학문적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중독의 측정도구를 문제적 이용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소셜미디어 문제적 이용과 중독을 구분하지 않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소셜미디어의 문제적 이용 습관이 중독의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즉, 소셜미디어의 문제적 이용이 지속되면 중독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효과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경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

- 김봉섭(2015)「사회과학연구: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서적 효과 연구: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41(1), pp.85-109
- 김은미 외(2011)『SNS혁명의 신화와 실제』서울: 나남
- 노미진·장성희(2016)「SNS 이용 동기와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경영과 정보연구』35(4), pp.99-122
- 노영(2016)「SNS 이용동기가 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e-비즈니스 연구』17(3), pp.301-320
- 박노일·남은하(2008)「블로그 이용동기가 저널리즘 역할인식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한국언론학보』52(1), pp.334-358
- 박민정·정미영(2019)「대학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중독경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지역사회간호학회지』30(1), pp.38-46
- 박용기(2013)「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언론과학연구』13(4), pp.305-342
- 박현지·박영배(2017)「RCT모형을 사용한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SNS 정보탐색행동 비교연구」『한국일본근대학회』58, pp.331-348
- _____ (2018)「HEXACO 성격유형과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비교연구」『한국일본근대학회』61, pp.245-264
- _____ (2019)「소셜미디어의 미시적 이용 동기 연구: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비교 연구」『한국일본근대학회』65, pp.281-319
- 배성만(2018)「스마트폰 사용유형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정보화정책』25(4), 한국정보화진흥원
- 송혜진(2011)「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SNS 중독에 관한 연구」『한국중독범죄학』1(2), pp.31-49
- 설진아(2010)「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동기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상관성 연구」『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14, pp.43-72
- 성요안나·현명호(2016)「대학생의 SNS 이용동기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스트레스 연구』24(4), pp.257-263
- 신미경(2015)「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심리, 사회적 변인과 온라인 상호작용 선호 경향성 및 SNS 이용동기를 중심으로」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슬기(2015)「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인터넷 독에 따른 정서, 사회 고독의 차이」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나(2016)「관계적 공격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석(2010)「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동기와 충속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옥·박조원(2018)「대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한국광고홍보학회』20(3), pp.301-326
- 이은지(2019)「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영향요인 비교: 제7차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5(2), 165-174.
- 이방형 외(2013)「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의 차원 분석과 마케팅 시사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마케팅연구, 28(2), 87-108.
- 이희복 외(2015)『소셜미디어 시대의 광고』. 커뮤니케이션북스
- 장민희 외(2017)「초연결 사회 속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탐색」스트레스 연구, 25(2), 128-137.
- 조진행(2018)「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의 매개된 조절효과」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희(2016)「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영·김종남(2014)「대학생용 SNS중독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한국심리학회지; 건강』19(1), pp.147-166
- 정춘화(2018)「고등학생의 SNS 이용동기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18(1), pp.637-655
- 최민재·김위근(2013)「SNS 모바일 마케팅 서비스의 이용동기, 평가, 선택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국광고홍보 학보』15(2), pp.85-110
- 최정화(2012)「SNS이용이 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정치커뮤니케이션』27, pp.369-408
- 최현석 외(2013)「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K대 대학생을 중심으로」『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23(5), pp.1005-1015
- 함소연(2016)「청소년의 SNS 이용동기가 학교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희(2002)「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가정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수정(2014)「SNS 이용동기와 네트워크 유형이 온라인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日経ビジネス(2019)「フェイスブック仕事で使う、会社で活かす」日経BPムック, pp.1-122
- Ancu, M., & Cozma, R. (2009). MySpace politics, uses & gratifications of befriending candidat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3(4), 567-583.
- Andreassen, S. (2015). Online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 A comprehensive review. *Current Addiction Reports*, 2.
- Andreassen, S., & Pallesen, S. (2014).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 an overview. *Current Pharmaceutical Design*, 20(25), 4053-4061.
- Andreassen, S., Pallesen, S., & Griffiths, D.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ve use of social media, narcissism, and self-esteem: Findings from a large national survey. *Addictive Behaviors*, 64, 287-293.
- Andreassen, S., Torsheim, T., Brunborg, S., & Pallesen, S. (2012). Development of a Facebook addi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110(2), 501-517.
- Arpaci, I. (2013). Organizational adoption of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ie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 School of Informatics,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tiy.
- Arapaci, I., Yardimci, Y., & Turetken, O. (2015). Impact of perceived security on organizational adoption of smartphon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8(10), 602-608.
- Atroszko, A. (2015, 2018). Commentary on: The Bergen study addiction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talian version. A pilot study.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research on study addiction with relevance to the debate on conceptualising behavioural addictions. *Psychiatr Psychol Klin*, 18, 276-282.
- Baker, A., & Algorta, P.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studi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9 (11), 638-648.
- Billieux, J., Schimmenti, A., Khazaal, Y., Maurage, P & Heeren, A. (2015). Are we overpathologizing everyday life? A tenable blueprint for behavioral addiction research.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3), 119-123.
- Blumler, G. (1979). The role of theory in uses and gratifications studies. *Communication Research*, 6, 9-36.

- Caplan, S. E. (2003). Preference for online social interaction: A theory of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ommunication Research*, 30 (6), 625-648.
- Casale & Fioravanti. (2018). Why narcissists are at risk for developing Facebook addiction: The need to be admired and the need to belong. *Addictive behaviors*, 76, 312-318.
- Classen, B., Wood, J., & Davis, P. (2020). Social Network Sites, Fear of Missing Out, and Psychosocial Correlates. *Journal of Psychology Research on Cyberspace*, 14(3). 12-23.
- Cora, S. (2008). Motivations and usage patterns on social network sites. *Library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2008 Proceedings*, 143-156.
-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al model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 187-195.
- Elhai, J., Yang, H, & Montag, C., (2020). Fear of missing out: Overview,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literature review on relation with severity of negative affectively and problematic technical use. *Braz J. Psychiatry*, 1-7.
- Griffiths, D., Demetrovics, Z., & Atroszko, A. (2018). Ten myths about work addiction.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7(4), 845-857.
- Griffiths, D., Kuss, J., & Demetrovics, Z. (2014). *Social networking addiction: An overview of preliminary findings. Behavioral Addictions Criteria, Evidence, and Treatment*, New York: Elsevier, 119-141.
- Guazzini, A., Cecchini, C., Guidi, E., Milani, M., & Meringolo, P. (2016). Excessive self-presentation on Facebook. *Frontiers*, 5(1), 16-27.
- Gülнар, B., Balci, S., & Çakir, V. (2010). Motivations of Facebook, YouTube and similar Web sites users. *Bilig*, 54, 161-184.
-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61-177.
- Hormes, M. (2016). Under the influence of Facebook? Exces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and drinking motives, consequences, and attitude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5(1), 122-129.
- Hussain, Z., & Griffiths, M. (2018). Problematic social networking site use and comorbid psychiatric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of recent large-scale studies. *Frontiers in Psychiatry*, 9, 686.
- Jeon, S., Lee, K., & Sang, M. (2014). Facebook addiction among Koreans: A look at communication-related variables. *Speech Commun.* 23, 243-272.
- Jeong SR, Hyun MH. (2015). Mediating effects of inferiority feel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st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depression: Fo-cusing on Facebook use by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4), 703-717.
- Kirschner, A., & Karpinski, C. (2010). Facebook and academic performance. *Comput Hum Behav*, 26, 1237-1245.
- Kuss, J., & Griffiths, D. (2017). Social networking sites and addiction: Ten lessons learned.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 Public Health*, 14(3), 311.
- Kwahk, H., & Hong, Y. (2018). The influenc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on SNS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interpersonal probl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 (3), 33-62.
- Koc, M., & Gulyagci, S. (2013). Facebook addiction among Turkish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psychological health, demographic, and usage characteristics.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 Lee, W., Cheung, M., & Thadani, R. (2012). An investigation into the problematic use of Facebook, system science (HICSS). 2012 45thHawaiiInternationalConference,Maui,HI:IEEE.
- Lee, YM. (2016). SNS addiction tendency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561-568.
- Lim. (2014). Gender differences on the effects of SNS use motivation and perceived interactivity and social anxiety in the SNS addiction proneness of college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Geonyang University.
- Lim, M. S., & Kim, J. (2018). Facebook users' loneliness based on different typ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inks to grandiosity and envy.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https://doi.org/10.1108/IITP-04-2016-0095>
- Malik, S., & Khan, M. (2015). Impact of Facebook addiction on narcissistic behavior and self-esteem among students. *J Pak Med Assoc*, 65, 260-263.
- Marino, C., Gini, G., Vieno, A., & Spada, M. (2018). A comprehensive meta-analysis on problematic Facebook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3, 267-277.
- Muench F, Hayes M, Kuerbis A, Shao S. (2015).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rouble controlling Facebook use, time spent on the site and distres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3), 163-169.
- Muench, F., Hayes, M., Kuerbis, A., & Shao, S. (2015).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rouble controlling Facebook use, time spent on the site and distres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3), 163-169.
- National Informatization Society Agency (NIA). (2001). A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Author, Daegu.
- Neo, R. L. & Skorik, M. M. (2009). Problematic instant messaging us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 627-657.
- Nyland, R., & Near, C. (2007). Jesus is my friend: Religiosity as a mediating factor in Internet social networking use. Paper presented at AEJMC Midwinter Conference, Reno, NV.
- Oberst, U., Renau, V., Chamarro, A., & Carbonell, X. (2016). Gender stereotypes in Facebook profiles: Are women more female onlin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0, 559-564.
- Oberst, U., Wegmann, E., Stodt, B., Brand, M., & Chamarro, A. (2017). Negative consequences from heavy social networking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fear of missing out. *Journal of Adolescence*, Vol. 55.
- Pempek, T., Yermolayeva, Y., & Calvert, S. (2009). College students' social networking experiences on Facebook.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 227-238.
- Pew Research Center . (2019). Social media fact sheet.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fact-sheet/social-media/> April 26, 2020.
- Philipp, K., Masur, K., Reinecke, L., Ziegele, M., & Quiring, O. (2014). The interplay of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nd Facebook specific motives in explaining addictive behavior on Faceboo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9, 376-386.
- Pi, J. (2013). The Difference in SNS Addiction possibility, Self-Esteem and Person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SNS Behavior.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3.
- Ryan, T., Chester, A., Reece, J & Xenos, S. (2014). The uses and abuses of Facebook: A review of Facebook addiction.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 Stapleton, P., Luiz, G., & Chatwin, H. (2017). Generation validation: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use of Instagram among emerging adult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0(3), 142-149.
- Steers, N., Wickham, E., & Acitelli, K. (2014). Seeing everyone else's highlight reels: How Facebook usage is linked to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3(8), 701-731.
- Subrahmanyam, K., Greenfield, P., Kraut, R., & Gross, E. (2001). The impact of computer use on children's and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7-30.
- Sussman, S., Rozgonjuk, D., & van den Eijnden, R. (2017). Substance and behavioral addictions may share a

- similar underlying process of dysregulation. *Addiction*, 112(10), 1717-1718.
- Taylor, G., Lewin, E., & Strutton, D. (2011). Friends, fans, & followers, do ads work on social network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51(1), 258-275.
- Turel, O., & Qahri-Saremi, H. (2016). Problematic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Antecedents and consequence from a dual-system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3(4), 1087-1116.
- Valkenburg, P. M., Peter, J., & Schouten, A. P. (2006). Friend networking sit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s' well-being and social self-esteem.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9, 584-590.
- Wallace, H. M & Baumeister, R. F. (2002). The performance of narcissists and falls with perceived opportunity for gl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19-834.
- Wang, L., Luo, J., Gao, W., & Kong, J. (2012). The effect of Internet use on adolescents' lifestyles: a national survey. *Comput, Human Behav*, 28, 2007-2013.
- We are social. (2018). *Global Digital Report*. <https://digitalreport.wearesocial.com/>.
- White, J., and D, Mills (2014). Examining attitudes towards and usage of smartphone technology among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studying EFL. *Call EJ*, 15(2), 1-15.
- Woods, M., Taylor., & B, Dumas. (2019). Social Media Usage by Millennial College Students: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Age Student Leader. *Academy of Educational Leadership Journal*, 23(1), 1-4.
- Wu, A. M. S., Cheng, V. I., Ku, L., & Hung, E. P. W. (2013). Psychological risk factors of addiction to social networking sites among Chinese smartphone user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2(3), 160-166

논문투고일 : 2020년 12월 16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21년 02월 04일
2차 수정일 : 2021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2월 17일

<要旨>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 관계에서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 일본대학생을 중심으로 -

박현지·박영배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과도한 이용을 설정하고 이 관계에서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광역시 소재의 3군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에는 대학생 25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학생들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은 문제적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수록, 접속시간이 많을수록 문제적 이용의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셋째,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는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의 관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이 이용동기 하위요인들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용 동기의 매개적 효과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문제적 이용이 지속되면 중독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효과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경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 Analysis for the Mediating Effects of Usage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cessive Use and Problematic Use of Social Media

- Focusing o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

Park, Hyun-Jee · Park, Young-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whether usage motivation show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cessive use and problematic use of social media.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300 Japanese students enrolled in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in Korea, and data for 255 university students wer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Bootstrapping was applied to verify for mediating effec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xcessive use of social media by college students had a direct effect on problematic use; Second, the longer the time spent using social media and the longer access time, the higher the tendency of problematic use;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usage motivation of social media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cessive use of social media and problematic use of college students; Lastly, it can be seen that excessive use of social media has a positive effect on all sub-factors of usage motivation. To summarize, college students' excessive use and problematic use of social media had a positive effect, and also a mediating effect of usage motivation.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inferred that if the problematic use of social media continues, addictive phenomena will be appear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path and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the mediating effects.